

# 탄산음료 대신 연꽃차 마시며 전통문화 즐겨요

## 미타사 연꽃전통문화체험

화창한 5월의 마지막 토요일, 서울 옥수동 미타사 담벼락을 따라 귀에 익숙한 전통 음악이 흐른다. ‘꼭두각시’ 춤 음악이다. 미타사 경내에는 노래에 맞춰 아이들의 춤 연습이 한창이다. 이른 아침부터 성동구립연꽃어린이집 해오름반 아이들 10여 명이 한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막바지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곧 친구들과 앞에서 춤을 선보일 생각에 잔뜩 상기된 표정이다.

옥수동 미타사(주지 상덕)는 설·추석·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를 앞두고 5월 28일 ‘제11회 연꽃전통문화체험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미타사가 수탁 운영중인 성동구립 연꽃어린이집 가족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단오맞이 전통문화체험으로 아단 법석이였다.

행사에는 떡을거리, 체험한마당, 놀거리, 함께하는 마당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떡을거리로는 예부터 혼례나 경사에 먹는 잔치국수와 단오 때 먹었던 꽃차를 준비했다. 떡매치기, 수리취떡 만들기, 타래과 만들기처럼 전통 먹거리도 직접 만들 수 있다. 체험한마당에는 단오날에 선물로 주고받는 부채인 단오선(端午扇)만들기, 짚풀로 다양한 물건 만들어보기, 단청에 색칠해 목걸이 만들기 등 아이들이 전통문화를 즐겁게 접할 수 있게했다.

이날 아이들은 알록달록 예쁜 한복을 입고 땀을 뻘뻘했다. 김노아 어린이는 “예전부터 다례(茶禮)시간에 한복을 입었어요. 차 만드는 날이 돌아오면 한복을 입어요. 친구들과 생일잔치 할 때도 입고요”라며 한복입는 것을 즐거워했다.

연꽃어린이집에서는 3~5세 어린이들이 다례를 배운다. 어린이집 최윤정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서 그런지 평소엔 장난꾸러기 같던 아이들도 다례시간에는 차분하게 차를 마신다”고 했다.

마당 한편에는 장터가 벌어졌다. “여기 물병이어요. 보은 잘되는 물병 있어요!” “인형사세요. 진짜 예쁜 곰 인형이에요!”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우리동네 녹색장터’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기증한 물건들이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행사에는 전통문화체험과 함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는 정신을 키울 수 있는 녹색장터를 마련했다. 아

### 단오선·수리취떡 만들며

### 단오 풍속 체험하는 아이들

이들은 서로 물건을 팔겠다고 목청껏 소리 높였다. 동화책, 장난감, 아동복 등 없는 것이 없지만 제일 비싼 것이 1000원이다.

미타사에는 불과 30년 전만해도 단오날이면 동네 처자들이 그네를 뒀다. 300년 된 나무가 있다. 오늘은 그 자리에 그네대신 아이들을 위한 떡매가 준비됐다. 아이는 커다란 나무망치를 들고 잡알 반죽을 내리쳤다. 떡매가 딱에 잘잘 붙어 잘 떨어지지도 않지만 마냥 즐겁다.



음력 5월 5일 단오를 앞두고 미타사에서 열린 제11회 연꽃전통문화체험 행사. 전통음악에 맞춰 꼭두각시 춤을 추고있는 어린이들

떡매만 치는 것이 아니라 단오 음식인 수리취떡을 만들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아이들이 직접 플라스틱 칼로 떡 반죽을 잘라내 떡살로 눌러 찌는다. 먼저 떡살과 도마에 참기름을 바르는 것도 잊지 않는다. 직접 만든 수리취떡은 평소엔 취나물을 즐겨 먹지 않던 아이들도 향긋한 봄나물의 향기에 푹 빠지게했다.

맷돌, 디딜방아, 다듬이도 준비 됐다. 어머니들은 맷돌을 보면서 옛 향수를 떠올렸다. “엄마 어렸을 때 외할머니가 여기에다가 콩을 갈아서 엄마가 좋아하는 콩국수 해주셨어요”라고 말하며 아이와 함께 마주 앉아 맷돌을 돌렸다. 맷돌은 어머니에게는 향수를, 아이에게는 새로운 추억이 됐다. 나무에 매단 그네도 타고 널도 뛰어볼 수 있는 미타사는 도심속 작은 민속촌이 됐다.

전통놀이와 단오음식을 체험해 보는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우리아이 칭찬하기’ 코너이다. 옛 방식으로 만든 명주 천으로 된 두루마리 서책에 부모님들은 아이가 잘하는 점을 써 칭찬했다. 부모님이 자신을 칭찬의 글을 쓰는 것을 지켜본 아이들은 기분이 좋으면서도 멍때리는 엄마 아빠 옆에 안지 못하고 주위를 맴 돌았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240인분 준비된 잔치국수도 동이 나고 시원한 매실차와 연꽃차도 바닥을 들어냈

다. 아이들은 함께 만드는 만다라도 색색으로 모두 칠하고 짚으로 새끼를 꼬는 법도 배웠다. 아이들에게는 전통문화가 더 이상 어렵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었다. 손으로 만지고 직접 살펴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금새 어떻게 하는지 알아냈다.

체험한마당이 끝나고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정실홍실’ 놀이가 이어졌다. 어른들이 청색과 홍색의 비단을 팽팽하게 맞잡으면 그 위를 아이들이 밟

### 신라 고찰 마타사, 지금은 아이들 세상

### 단오맞이 전통체험으로 지역민과도 화합

고 지나간다. 아이들이 무사히 비단길을 지나게 함 신하면서 아이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미타사 앞 마당은 공중에 떠있는 비단 위를 걸어간다는 긴장감과 설렘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처음만나 어색해하던 아빠들도 한마음이돼 비단을 지탱했다.

미타사 주지 상덕 스님은 “음력 5월 5일 단오는 농사의 번영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던 명절이었지만 지금은 잊혀져 가고있다. 단오가 사라져 가는 명절이었다. 아이들에게 단오를 어떻게 설명해줄 수

있을지 많이 고민하며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잊혀져가는 옛 조상들 풍속을 체험을 통해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미타사는 아이들에게 전통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자 11년째 ‘연꽃전통문화체험문화행사’를 지속해 오고 있다”

성동구립 연꽃어린이집 정명자 원장은 “우리의 웃인 한복이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돼버렸다. 아이들에게 한복을 접할 기회를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한다. 가정 통신문을 통해 부모님게도 아이들과 함께 한복을 입고 오기를 부탁하지만 해마다 한복을

입고 오는 학부모님들이 줄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라 진성여왕 2년에 건립된 미타사는 종남산에 둘러싸여 경관이 뛰어나고 물맛이 좋았다고 한다. 지금은 처마 옆으로 전철이 지나가고 뒤로는 병풍처럼 아파트가 들어서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지만 다음 세대에 살아있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교육의 장이 되고있다.

탄산음료보다 연꽃차를 좋아하고 다례를 배우며 간식으로 수리취떡을 먹는 연꽃어린이집 아이들이 있어 우리 전통문화의 미래는 밝아보였다.

천진영 기자



아이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정실홍실’ 놀이



‘우리아이 칭찬하기’에서 1등한 아버지의 칭찬 낭독 및 전달

##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2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 국제포교사(승려, 재가 법사)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맑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왠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8월 18일, 수계의식 6박 7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신청기간 : 7월 1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 완료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이력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

